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발명반용 교재

특허청은 1987년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발명반용 교재 '발명과 특허'를 발간, 전국 주요 초·중·고·대학에 배포했다. 이어 1989년에는 '발명생활'을 발간하는 등 계속하여 발간, 배포하였다.



1987년에 발간된 '국민학교·중학교 학생발명반용 발명과 특허'(왕연중·김연수·강신묵 공저) 국판 148쪽(왼쪽)과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발명반용 발명과 특허'(왕연중·김연수·강신묵 공저) 국판 164쪽(중앙) 그리고 1989년에 발간한 '각급학교 학생발명반용 교재 발명생활'(왕연중 저) 4*6배판 150쪽(오른쪽).

'발명생활'에는 우리나라 최초 발명이론인 '발명의 10계명'이 왕연중 씨에 의해 창안·발표되어 당시 언론계 및 출판계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발명의 10계명'은 요즘 국내의 거의 모든 발명도서에 소개되고 있다. 왕씨는 '발명의 10계명'으로 유명세를 타고 104권의 발명도서를 집필, 세계최다발명도 서저술인이 되기도 했다.

'발명의 10계명'은 미국과 일본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허청도 이를 공인하여 지금까지 각종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와 전국 발명교실에는 포스터 형식으로도 제작되어 소개되고 있다.

_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